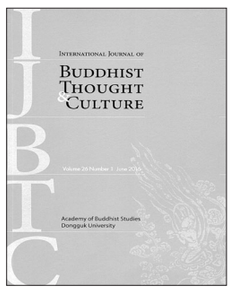
동국대 이관 'IJBTC' 혁신판 발행

북경대, 보쿰대 등 저명학자 논문 10편 게재

'아시아 관점의 한국불교' 주제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처가 이관된 국내 유일의 영문불교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공동편집장 김종욱 · 리차드 맥브라이드, 이하 IJBTC)〉가 편집 체계를 혁신해 새롭게 발행됐다.

6월30일자로 발행된 IJBTC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불교(Korean Buddhism in Asian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 4편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4편, 그리고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특히 이번 혁신호에는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불교학 명문인 콜럼비아대, 보쿰대, 대만대, 북경대 소속 대표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동국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번 기획 논문에 참여한 판자크 모한 나란다 대학 교수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판-아시안니즘과 민족주의 지향 속에서 인도와 한국불교의 유사성을 찾아보고 있으며, 리 시롱 북경대 교수는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와 많은 점을 공유하며 중국 불교 발전에 거꾸로 많은 기여했다는 점을 논증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와 한글의 상관관계는?

한국선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공동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8월 18~19일 국립한글박물관과 연세대 백양누리라운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8월18일 오후 1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되는 1일차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한글, 한국어' (남기심, 연세대), '한글의 탄생과 불교사상의 언어' (노마 히데키, 일본 명치학원대), '말뭉치로서의 한글대장경과 그 활용' (서상규, 연세대), '불경언해 역주 현황과 의미' (홍현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화엄경과 한글 번역' (신규탁,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8월29일 오전 10시 연세대에서 진행되는 2일차 학술대회에서는 '훈민정음 표기법과 불전언해' (정우영, 동국대),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 보급의 의미' (김슬옹, 인하대), '운허의 법화경 한글번역'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금강경 한글번역' (김치온, 진각대),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재수, 동국대), '조선어사전의 불교 어휘' (백해파, 중국 중앙민족대),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김한샘, 연세대), '능엄경언해 비교 연구' (유근선,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불교학술원, 17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문불전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해독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 2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9월 1일 개강하는 한문아카데미는 '논어' (한재훈),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 (원과 스님), '한문법' (안재철), '대승기신론' (은정희), '화엄경 게송' (반산 스님)의 강좌가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4학기제로 운영되는 한문아카데미는 매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선발연수생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수강료 30% 면제, 조계종 소속 승려는 전액 면제다. 일반연수생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입학희망자는 8월1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nampyora@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선발연수생), 수강신청서(일반연수생)는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발연수생은 8월 20일 서류심사와 면접 전형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8월26일 개별 통보한다. (02)6713-5154

한반도 전래된 불교는 어떻게 정착됐을까

김두진 명예교수,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발간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국가가 불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삼국시대 불교 수용과 신앙 발전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학술연구서가 발간됐다.

김두진 국민대 명예교수는 최근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를 펴냈다. 이 책은 불교가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지배층, 즉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어떻게 전파 · 수용되었는지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평생을 불교 사상과 신앙의 형태를 사회사상사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서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는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하나로 묶어낸 집합체다.

실제, 삼국 사회에 처음 전래된 왕실 중심의 초전 불교는 홍포 과정에서 귀족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신앙 면에서 왕실과 귀족이 조화와 타협을 이룸으로써 공인불교가 성립됐다. 신라 중대에 이르러 불교는 철학적 논리 체계를 갖추고 이론 불교를 발전시키면서 대중화됐다. 다시 말해 사회를 이끄는 사상이었고, 이를 사상사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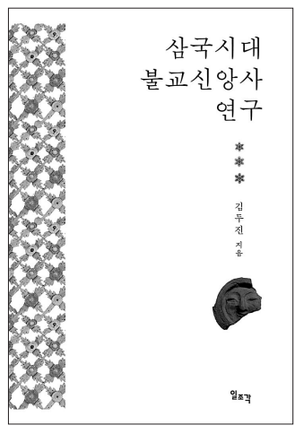
김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과 신앙의 양상을 차례차례 살핀 후 법화영험신앙과 불성신앙 등 삼국의 공인불교신앙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연구서는 결론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은 삼국에 불교가 전해져 공인되는 과정을 살핀다. 저자는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양상이 삼국에서 어떤 차이를 지녔는지 살피면서 왕실에서 우선적으로 불교신앙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공인불교신앙의 여러 모습을 제시하는데, 주로 법화영험신앙과 불성신앙 등을 삼국 사회와 연관하여 밝혔다. 제5장은 이론불교가 성립하기 위한 공인불교의 변화를 다루었다. 저자는 원광과 자장을 통해 불교가 대중화되기 위한 계율의 생활화를 살핀다.

연구서를 살피면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귀족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곳은 신라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차돈의 순교에서도 나타나듯 토착 귀족 세력이 강했던 신라는 불교가 공인화에 진통이 있었다. 반면, 백제와 고구려에는 이렇다 할 저항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백제 불교의 공인의 경우 귀족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 삼국 중 가장 미약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고구려 불교는 왕즉불(王卽佛, 왕이 곧 부처)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었지만, 토착 신앙의 제사장으로서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귀족 세력이 있어 반대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불교 수용 · 신앙 양상 분석해

삼국의 공인불교 신앙 정리

도래 초기 왕실서 적극 수용

공인화, 귀족들 통해 이뤄져

미륵 · 석가불 · 법화영험 등 성행

또한, 김 교수는 불교 전래에서 왕실이 우선적으로 수용한 것은 중국 북조 불교 사상인 '왕즉불' 사상에 기인한다고 봤다.

이후 각자의 국가가 영토를 확대하는 정복국가의 형식을 가지면서 불교의 공인화가 이뤄지는 데 여기서도 불교 신앙 사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왕을 보살로 여기는 '왕즉보살'과 석가불 사상, 전륜성왕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왕즉불 신앙을 강조한 초전불교에서 왕실은 전륜성왕의 관념과 석가불 사상을 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귀족에게까지 불교 신앙을 홍포했다"면서 "전륜성왕과 미륵 내지 석가불은 불교 신앙 면에서 국왕과 귀족 세력이 조화와 타협을 이루게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왕실 중심으로 전해진 초전불교는 공인 과정을 거쳐 귀족불교로 나아갔고, 한반도에 불교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됐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석가불 신앙이난 불성 신앙의 성행은 귀족불교가 통합적 성격을 가지면서 사상적으로 발전하게 했다"며 "대중화된 귀족불교는 정토 사상을 성립시키는 한편, 사상적 논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원광과 자장의 과도기를 거쳐 원효와 의상의 불교교학이 융섭적 논리체계를 이루게 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문화재 연구 활성화 협약 잇달아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심으로 불교문화재硏, 대흥사 MOU

불교 문화재 연구 상호 협력 대흥사 고문헌 1천여 점 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건축문화연구소는 8월 4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 문화재 연구 · 조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잇달아 체결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건축문화연구소(학술원장 정승석)는 8월 4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연구 △기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불교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한 1차적인 학술조사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불교문화재 학술연구조사의 범위를 보존방안연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연구를 활성화 하기에 매우 적기"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로 불교 문화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현재 불교 건축과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없다. 전문적 연구를 위해 학술원 내 불교건축문화연구소를 올해 개소했다"며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7월 26일 대흥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흥사가 소장한 약 1천 여 점의 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출발이다.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2년 장성 용흥사에서 대흥사의 많은 고문헌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지자료집-대흥사편〉을 현재 3권까지 간행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조사완료 후 서지 자료와 함께 고해상도 촬영 결과물을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대흥사 소장의 고문헌 조사는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찰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참행복으로 가는 무소유의 생활선법(生活禪法)
화제의 신간
禪과 무소유
일상생활 전체가 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든 싫든 간에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의 특색이다. 그래서 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초월이라는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선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 명상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일체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축적하는가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관념들을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가 가득차 있다고 느끼기 위함이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15,000원
법성요해
法性了解
깨달음의 궁극, 원융일심 화엄실상 법성지혜를 밝힌 책
▣ 원융불이 이사원융 사사무애 실상법계 일심의 깨달음세계를 이 책에 밝혔다.
♠ 화엄실상, 원융일지(圓融一智) 일심요의(一心了義) 각성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어 밝혔다.
♠ 깨달음 지혜로 일심, 일성, 일각의 실상을 정의하며, 일심원융세계를 밝혔다.
♠ 각종 차별개념과 중용, 중도의 실상과 그 차별 차원을 밝혔다.
신국판 | 세웅스님 역저 | 464쪽 | 정가 25,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